

요금 오르니 전력소비 '뚝'... 지난해 11월 소비량 10% 감소

광주·전남 산업용 19.5% 감소...주택용 2.1%·일반용 0.6% ↓ 1~11월 누계 소비량은 '역대 최대' 기록...2년 연속 증가 추세 '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경관조명등 끄기 등 실천방안 제시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광주·전남 11월 전력 소비량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 운동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도, 지난해 1~11월 누계 전력 소비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주·전남 전력 소비량(판매량)은 302만 2885MWh(메가와트시)로, 1년 전보다 10.8%(-36

만7646MWh) 감소했다. 광주지역에서 11월 전력 소비량은 전년보다 2.9% 감소했고, 전남은 13.0% 줄었다. 전달보다는 광주·전남 전력 소비량이 18.9%(-70만4663MWh) 줄었다. 광주 전력 소비는 전달보다 0.2% 줄이는 데 그쳤지만, 전남에서 23.2%나 소비를 줄이면서 감소 폭을 넓혔다. 광주·전남 전력 소비량은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11월부터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해 11월 전력 소비를 전년보다 가장 큰 폭으로 줄인 부문은 공장 등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력이었다. 광주·전남 산업용 전력 11월 소비량은 1년 전보다 19.5%나 감소했다. 주택용은 2.1% 감소하고,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 소비는 0.6% 줄었다. 심야용(-10.2%)과 교육용(-4.0%) 전력 소비도 감소했지만, 농업용(7.4% ↑)과 가로 등(1.3%)은 사용이 늘었다. 지난 연말 전력 소비 증가세는 주춤했지만, 연간 소비량은 통계를 낸 2002년 이후 역대 최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이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리고 정부 차원 에너지 소비 절감 정책을 시행했지만, 광주·전남 전력 소비량은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1~11월 광주·전남 누계 전력 소비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4007만MWh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준 2002년 전력 소비량은 1930만MWh였는데, 20년 뒤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전력통계를 낸 2002년부터 광주·전남 전력 소비는 해마다 늘다가 2018년 3938만MWh(1~11월 누계)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3755만MWh), 2020년(3611만MWh)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2021년(3873만MWh)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니 지난해는 4000만MWh를 넘겼다. 지난해 옹도별 전력 소비량을 보면 농업용 소비가 6.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일반용(4.8%), 교육용(4.2%), 산업용(3.3%), 주택용(1.5%) 등 순이었다. 심야용(-5.6%)과 가로등(-0.6%) 전력 사용은

전년보다 줄었다. 정부는 최근 3개년 겨울철 에너지 평균 사용량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지난해 10월18일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다. 여기에는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권역별 전력 고조 시간대(광주·전남 오후 4시 30분~5시)에는 난방기를 끄고, 밤 11시부터는 경관조명을 끄는 등의 5대 실천방안이 담겼다. 한편 올해도 1분기에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르면서 2차 석유파동 시기였던 1980년대 초 이후 최고·최대 폭 인상이 단행됐다. 하지만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kWh당 51.6원)의 4분의 1 정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가 1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직거래 큰 장터'를 열고 광주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내춘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김종일 광주지점 사무국장, 고성신 농협 광주본부장, 이수권 검사장, 김호상 광주축협 조합장, 김형덕 송정농협 조합장. <농협 광주본부 제공>

조합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특별 교육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3월8일)를 앞두고 17일 공정선거지원단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공정선거지원단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입후보 예정자 등과 직접 대면하며 활동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선거 지원에 관한 역할과 자세,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소개했다. 시선관위는 단속 현장에서의 대응 요령과 위탁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소개, 전문가와 고객 응대(CS) 교육 등을 진행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관계 법규를 안내하

고 위법 행위를 예방·단속하는 임무를 한다. 한편 광주지역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월2일까지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와 신청 절차,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19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광주여대체육관 회의실)을 시작으로, 27일 남구선거관위, 31일 서구선거관위·북구선거관위, 2월2일 동구선거관위 등이 차례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에 따라 후보자등록 서류가 다를 수 있다"며 "조합장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을 안내하는 자리인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은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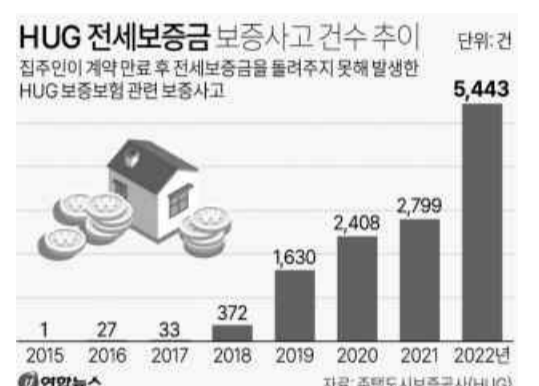
농협 광주본부, 직거래 큰장터 14개 농·축협 우수 농산물 판매

농협 광주본부는 17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설 명절 농·축산물 직거래 큰 장터'를 열고 광주지역 14개 농·축협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판매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이수권 검사장과 광주지점 직원들은 설명회를 앞두고 광주 농축산물을 구매했다. 광주 14개 농·축협은 과일 선물과 한우, 제수용품 등 우수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내놓았다. 농협 광주본부와 광주지방검찰청은 '우리 고장 먹거리 소비촉진 협약'을 맺고 명절마다 농축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는 이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광주 농축산물 기부 답례품을 전시하고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세금 보증사고 5443건... 1년만에 두배 '경충'

HUG 대위변제액 1조원 육박

지난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보증사고 건수는 2015년 1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30건으로 처음 1000건을 돌파했다. 이어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하반기 들어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며 1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월별로 보면 1월 265건이던 보증사고는 하반기부터 빠르게 늘어 7월 421건을 기록한 뒤 8월 511건, 9월 523건, 10월 704건으로 증가했다. 11월과 12월에는 각각 869건과 820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두 달 연속 800건을 넘겼다. 보증사고 금액도 덩달아 늘어났다. 2021년 5790억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1조1726억원으로 불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실제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불어 1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였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는 2021년 2475세대에서 지난해 4296세대로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들도 지난해 최다

를 기록했다. 소위 '깎 투기'를 이용한 조작적인 전세 사기가 잇따라 일어나는 데다가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해 HUG에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23만7797세대로 전년과 비교해 5600여 가구 늘었다. 보험 발급 금액도 55조4510억원으로 전년(51조5508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깎 투기'가 증가해 보증사고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율은 73.6%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거래율은 68.7%와 62.5%였다. 지방은 77.0%에 달했다. 전세거래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때릴 위험이 커진다. 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거래율을 조사하고 있다. 보증사고율은 전국 5.2%, 수도권 6.0%, 서울 5.3%, 지방 2.0% 등을 보였다. /연합뉴스

<h3>전원주택 (1채) → 7,000만</h3> <p>(토지 분양 중) 장성담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p> <p>(6층, 7층) = 140평</p> <p>시세 → 10억</p> <p>➔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3>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서구 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td> </tr> <tr> <td>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r> <td>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평가 130억 → 최저가 65억</td> </tr> </table>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평가 130억 → 최저가 65억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평가 130억 → 최저가 65억										
<p>010-6670-9800</p>	<p>010-2614-9801</p>									